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이번 복음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지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며 하늘나라에 초대하신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 우리 삶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에 자비와 용서를 청하고, 우리의 무엇이 예수님께 기억되길 바라는지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 복음 말씀

[(백)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35ㄴ-43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35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1월 셋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평신도 주일 - 11/13 (주일)

지난 주일 '평신도 주일'을 맞아 평신도의 의미와 평신도로서 우리의 권리, 의무, 소명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평신도란 현세적인 일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고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신자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 강론중에 말씀해주신 평신도의 의무, 권리, 소명을 짚어 보겠습니다. (교회법 208-221조)

- **평신도의 의무:** 신앙고백, 미사참례, 영성체, 교회교리 옹호, 교회의 유지, 합법적인 교회 당국에 대한 존경과 복종
- **평신도의 권리:** 하느님의 말씀, 성사, 대사, 축복 등을 받음; 교회에서 베푸는 매장, 기도자들에게 기억됨, 전례 참여 및 교회에 대한 의견 제시
- **평신도의 소명:** 사회의 누룩으로 세상에서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어야 함.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질서를 개선하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함.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12/2)

청년 마르코복음 성서모임이 12/2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시작됩니다. 11월엔 추수감사절 등의 연휴가 있는 관계로 12월부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투병중에 위독하신 **김현경 스테파니 자매의 고모님, 김영주 자매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느님의 보살핌속에 큰 고통 겪지 않으시길, 자매님과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위령성월 연도대회 - 11/27

위령성월을 맞아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인 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되새기기 위한 연도대회가 11/27일 주일, 점심시간 후에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부님께서 젊은 세대에게 연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개최하시는 행사이니만큼 우리 청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연도 대회는 각 반, 구역별로 하고, **하모니와 뜨락회가 한 팀**으로 참여할 것이며, **심사 기준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음이 잘 맞는가**입니다. 신부님께서 지정하신 한 팀이 연도를 시작하며, 다음 팀으로 넘어가는것도 신부님께서 당일날 바로바로 정하시면서 연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모니+뜨락회 연도대회 **연습이 다가오는 주일 (11/20)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연도 악보를(**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연도의 중요성을 새기며 한마음으로 함께 정성스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연옥영혼을 위한 '식사후 기도' 또한 급 질문할 수 있다 하셨으니 꼭 외우시고, 매일 식사후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미사와 식사 - 11/24

11/24(목) 추수감사절 미사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미사 후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니 참석 가능한 분들 연락 바랍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간식을 조금이나마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대림 피정 - 12/4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으로 교회와 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12/4 주일 미사 후 주임 신부님의 지도아래 대림 피정이 있으며 하모니 회합 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대림 시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12월 4일 (주일) 오후 1시30분 - 3시30분


지도: 최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대림절 성경쓰기



모든 신자분들이 성탄을 맞이하여 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요한의 첫째, 둘째, 셋째 서간** 쓰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모니도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요한복음 쓰기에 참여합니다~ 쓰기를 마친 성경노트는 성탄성야미사 (12/24)때 봉헌합니다.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최근 선종하신 김중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을 기도속에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

